

IPEX 2006

자동화시스템 · 연포장 전시관 관심 집중

오는 4월4일 영국 버밍엄에서 개최되는 IPEX2006 자동화시스템 및 JDF 전시관의 예약율이 지난해말 기준, 75%를 상회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6년 1월1일까지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하이델베르크를 비롯해 Dalim Software, EFI, 스크린, ePrint Direct, Dr Lauterbach & Partner 와 Lithotechnics등 15개 업체가 이미 예약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250㎡에 이르는 자동화 시스템 및 JDF 전시관은 가장 주목을 받는 행사장중의 하나인 20번 홀에 위치하며, 상품간 상호정보운영, 생산성, 수익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용자 솔루션을 집중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참가업체들은 전시관내 전용 회의장에서 CIPPI 사용자 사례 연구에 대한 프레젠테이션도 접할 수 있다.

또한 연포장 전시관도 이미 56개 업체가 예약을 마치면서 무려 80%의 예약률을 기록했다. 포장 분야와 인쇄산업에서 연포장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불과 6개월 전부터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이적인 호응을 얻게 됐다. 1400㎡의 1번 홀도 예상보다 빨리 예약이 끝남에 따라 개막일까지 2000㎡로 확장할 것을 검토중에 있다. 이 규모는 단일 포장 전시회보다도 큰 면적이다. 주요 전시 업체를 살펴보면 Cerutti Group을 비롯해 Comexi Group, DCM Group, BHS, SOMA Engineering, CMR, Polywest Sleeve Systems, Kampf, AVT, JM Heaford and AV Flexologic 등이다. 1번 홀의 연포장 특별 전용 회의장에서는 IST를 비롯해 Luscher Flexo, Drent Goebel, Creo, Alphasonics, Agfa와 GEW 등의 기업프레젠테이션이 개최된다.

IPEX 2006, 무료 기술 교육 실시

IPEX 준비위원회는 참가 의욕을 고취시키고 행사의 권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수준높은 무료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상 촉박한 일정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기업의 스태프들이 작업현장을 비우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이들은 핵심 인력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IPEX 방문만으로도 개별 기업들이 거두는 효과와 이익은 클 것이라는 것이 IPEX측의 설명이다.

Canon이 후원하는 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매일 아침 IPEX 트레이닝 센터 및 지정 장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영국인쇄산업연합(BIPF)이 진행하는 전문가 개발 프로그램 전략에 따라 인가증

을 받게된다. 각 수업은 45분간 진행되며 참가자들에게는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진다.

BPIF와 Amicus GPM Sector가 지원하는 이번 기술 훈련 프로그램은 실용적인 교육과 함께 IPEX 전시회의 진면목도 관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Amicus GPM Sector의 데이비드 타렌(David Tarren) 교육 고문은 "최근의 영국 노동자들은 그들이 도달해야 할 수준의 기술 훈련을 습득하지 않는 추세"라며 "이는 기업과 노동자 양쪽에게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한다. 반면 숙련된 작업자는 생산력을 향상시키며 이직률도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매우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교육을 진행하는 회사들만이 생존할 수 있다. 그는 또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 오랜 경력을 가진 중견 사원 혹은 생산현장의 직원에서부터 고위 임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력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만로랜드, 신상품 대거 전시 예정



만로랜드는 오는 4월4일부터 11일까지 영국 버밍엄에서 개최되는 IPEX2006에서 매엽 및 윤전 인쇄 관련 신상품과 서비스를 대거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사장 1번 홀 'PrintCity' 에 마련될 부스에서 만로랜드는 새로운 서비스 브랜드인 printnet, printcom, printservices를 비롯해 다양한 인쇄 기기를 선보이게 된다.

printnet, printcom, printservices는 작업흐름과 과정을 최적화시키는 인쇄 서비스 브랜드다. Printnet 소프트웨어는 인쇄 데이터 평가, 인쇄 작업 컨트롤, 그리고 품질 및 작업 관리 등을 통합하며 printcom는 블랭킷, 잉크, 인쇄 롤러부터 측정 도구들까지 모든 상품 영역을 포함한다. printservices는 만로랜드 인쇄시스템 작동이 지속적인 경제적 효과를 보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관리, 작업자 훈련 및 예비 부품 등의 모든 인쇄 서비스들을 결합하는 역할을 한다.



이밖에도 만로랜드는 양면인쇄 시 시간당 최대 1만5천장의 인쇄가 가능하고 싱글드럼(single-drum) 용지 전환 시스템이 장착된 로랜드 500, 780x1040mm로 더 커진 용지 크기를 바탕으로 생산성을 50% 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로랜드 700, 상업용 운전 인쇄기 가운데 72페이지 인쇄 유닛으로 대표되는 리소만 등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만로랜드 관계자는 “향후 16페이지 상업용 운전 인쇄기와 관련된 논의는, 표준 인쇄기부터 생산적인 최고급 시스템들에 이르기까지, 주문된 기능들을 갖춘 만로랜드 기계의 최대 활용 범위가 주요 이슈가 될 것이며, 신문 운전기 부문은 IfraExpo에서 소개됐던 혁신 기술들의 발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델베르크의 XL-105, 독일 연방 디자인상 은메달 수상

하이델베르크사는 신제품 스피드마스터 XL-105가 독일 연방 디자인상 은메달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프랑크푸르트 산업 전시회 ‘Ambiente’의 개회식에서 열린 행사에서 정무차관 다그마 뵐(Dagmar Wöhr)은 하이델베르크 이사회에서 엔지니어링 및 제조를 책임지고 있는 유르겐 라우터트(Jürgen



Rautert) 박사와 스피드마스터 XL-105의 디자인을 책임졌던 브쥔르 윌케(Björn Wilke)에게 인증서를 전달했다.

독일 디자인상은 독일 연방 정부, 즉 경제기술부 주관으로 독일 디자인회의에서 매년 수여하고 있는 공식 디자인상이다. 국내 혹은 국제적 디자인상을 수상한 제품들만 후보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상 중의 상’으로 불리기도 한다. 스피드마스터 XL-105는 2004년에 미국에서 굿 디자인 어워드(Good Design Award)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일본의 굿 디자인 어워드, 아메리칸 I.D 상, 독일 IF 상을 수상했다. 하이델베르크는 2002년 독일 디자인상에서 스피드마스터 CD-73가 수상에 오른 것을 포함해 1990년 이후 40여 차례에 걸쳐 디자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스피드마스터 XL-105는 시간 당 1만8천장을 최대 75x105cm 규격의 다양한 재료에 인쇄할 수 있다. 상업 및 패키징 부분의 대형 인쇄 업체를 비롯해 빠른 속도와 자동화, 효율적인 가동으로 큰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업체에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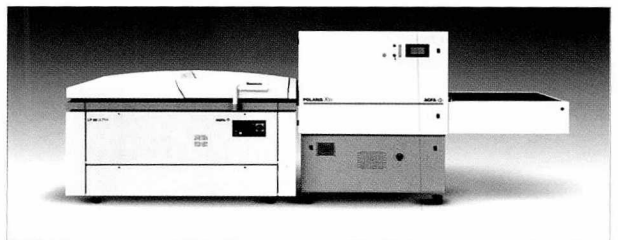
TKS의 신문용 인쇄기 반덤핑 판결 확정

미국 항소심법원 8차 공판은 최근 미국 인쇄산업에 해악을 끼치려는 목적으로 인쇄 장비 가격을 불공정하게 책정, 공급한 일본의 인쇄기 전문 제조업체인 TKS의 의도를 인정, 3500만달러치의 반덤핑 판결을 확정했다.

미국 항소심법원은 TKS의 행위가 미국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Goss Intl. Corp에게 끼친 손해를 배심원이 인정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Goss의 밥 브라운(Bob Brown) 대표이사는 “경쟁을 규칙으로 하는 자유 무역 및 교역 원칙 전반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아그파, 태국 영자신문사에 폴라리스 공급



태국의 최대 일간지인 Bangkok Post를 발간하는 The Post Publishing Company가 아그파의 바이올렛 CTP 시스템과 최첨단 스크리닝 기술을 도입키로 했다. Bangkok Post의 창사 60주년을 맞는 올해, The Post Publishing Company는 KBA 신문용 운전기와 아그파의 폴라리스 X 2대 등의 CTP 시스템 일체를 도입해 사세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아그파 CTP 시스템의 도입은 아그파의 폴라리스 X 신문사용 CTP 솔루션을 통해 Bangkok Post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다는 사전 시장조사 결과에 의해 이뤄졌다. 또한 아그파의 스크리닝 기술인 서블리마 및 기술지원부분이 Bangkok Post의 품질 혁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한다. The Post Publishing Company의 러삭(Lersak) 제작이사는 “폴라리스는 전세계적으로 신문사용 CTP 시장에서 그 생산성과 품질을 이미 검증 받았다. 타 시스템들은 복잡하지만 아그파의 이미징 시스템은 구성이 단순하면서도 정교하다. 또한 폴라리스 시스템은 해상도와 속도에 많은 추가투자를 하지 않고도 향후에 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서블리마 스크리닝 시스템으로 Bangkok Post는 보다 향상된 고품질의 인쇄물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 NAPL, eKG 리서치 인수

미국 뉴저지주에 소재한 미국인쇄지도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Printing Leadership)는 최근 그래픽 커뮤니케이션스 업체들이 조직에 대한 전략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독점적인 진단 방법을 서비스하는 sKG리서치어소시에이츠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eKG리서치의 최고 서비스인 컴피티티브니스eKG는 업계 상위 실적 업체들이 고객들의 충성도를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실현하며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활용된다.

eKG의 인수는 NAPL의 회원사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전략적인 정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이번 결정은 2004년 그래픽 커뮤니케이션스 컨설팅 회사인 Rampart Association, LLC를 인수하고 최근에는 미국단납기인쇄업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Quick Printers)와 동맹협정을 체결한 NAPL의 사업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하이델베르크, 후가공 기기 기록 달성

하이델베르크사는 최근 후가공 부문에 있어 2가지의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1000번째 스탈폴더 접지기와 200번째 스티치마



스터ST-400 중철기 설치가 바로 그것. 1000번째 접지기인 스탈폴더 TH82는 2005년 말, 영국에 위치한 만손 그룹 인쇄사에 설치됐다. 이 제품은 드루파 2004에서 처음 소개된 것으로 같은 해 '레드 dot 최우수 디자인 상' 을 수상했다. 한편 스티치마스터 ST-400 중철기는 2003년 말에 호주로 보내진 뒤 현재 200번째 제품이 독일, 누렘베르그에 위치한 드뤼슬러 인쇄사에서 가동 중이다. 두 제품 모두 기술 혁신부분에서 PIA/GATF 인터텍 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다.

스탈폴더 TH/KH는 모듈식 디자인으로 고객별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응용 기기들을 선택할 수 있어 중소 규모 인쇄 업체 및 후가공 전문 업체에 적합한 제품이다. 이 기기를 도입한 카리나 바스 만손 그룹 회장은 "효율성이 뛰어나고 더 큰 생산력과 유연성을 갖춘 제품"이라고 평했다. 이 회사의 사장인 베리 스틸씨도 "우리는 스탈폴더가 사용이 매우 간편하다는 점과 현재 있는 JDF 워크플로에 무리 없이 통합된다는 점을 높이 샀다" 고 말했다. 200번째의 기록을 세운 스티치마스터

ST-400은 생산 제품에 맞춰지는 세계 최초의 중철기로 통합 자동 규격 사전 설정 기능과 높은 유연성을 보장하는 서보 구동의 이동식 급지부가 장착돼 있다. 시간당 1만4천권의 속도로 장통의 책자 제작을 위해 설계됐다. 이 제품은 네트워크가 가능해 디지털 워크플로로 통합될 수 있다. 누렘베르그에 위치한 드뤼슬러 인쇄사는 현재 2대의 ST-400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한 대가 200번째로 공급된 것이라고 하이델베르크 측은 밝혔다.

바시스프린트 CTP로 월드컵 포스터 제작

바시스프린트의 UV Setter CTP 장비를 6대 보유한 독일 소재 대형 인쇄물 제작 · 공급사인 엘러홀드(Ellerhold)AG사가 최근 2006년 독일 월드컵 포스터 제작권자로 선정됐다.

바시스프린트(www.basysprint.com)에 따르면 엘러홀드AG사는 드루파2000에서 바시스프린트 UV Setter CTP의 기술력과 경제성을 확인하고 2001년에 처음으로 UV Setter-1116(대형 포맷)을 도입했다. 이후 2003년과 2004년에는 UV Setter-1520 3대를 설치했으며 2005년에도 UV Setter-1542(MLF)를 도입한 바 있다. 특히 2004년엔 '비즈니스 오스카상' 과 '독일 인쇄산업 혁신상' 을 수상함으로써 독일내 인쇄품질 우수기업으로 이름을 알렸다.

엘러홀드사 Zirndorf 공장의 Bernd Schmidt 대표는 "약 4년간 UV Setter CTP 장비를 도입, 일반 소부용 네가티브 PS판을 사용함으로써 타 CTP 전용판과 비교할 수 없는 가격경쟁력과 인쇄품질의 안정성 및 장비의 편리성 등을 경험했다"며 "이번에 독일 월드컵 포스터 제작권자로 선정됨으로써 UV Setter CTP의 고품질 재현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 고 전했다.

DIC, 선케미컬 조직 개편 · 시너지 효과 기대

선케미컬그룹의 모회사인 다이너폰인크&케미컬스(Dainippon Ink & Chemicals : DIC)는 최근 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위해 DIC와 선케미컬의 관리체계를 더욱 밀접하고 글로벌한 구조로 조정, 통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DIC는 얼마 전 DIC로지스틱스의 사장인 나오키 쓰지를 선케미컬 이사회 이사이자 부회장으로 임명했고 DIC 전략 기획분야 제너럴 매니저인 카주오 쿠도를 이사로 선출했다. 또한 지난해 말 웨스 루카스씨가 선케미컬 이사회의 회장자리만 유지한 채 대표이사 사장직에서 퇴임함에 따라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데이비드 힐을 선임했다. 지난 4년 동안 선케미컬에서 근무한 힐 신임 사장은 화학 산업 분야에서 36년의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